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9호 【루계 제24582호】 주체103(2014)년 6월 18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가운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이하게 된다.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전위대오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각지 당조직들의 당정치사업의 주되는 초점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인식시킬것인가 하는데 돌려지고있다.

당이 준 전투과업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제기일에 훌륭히 해제끼는것을 고유한 투쟁방식으로 간직하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를 비롯한 위대성도서들에 대한 독보와 연구발표모임, 혁명사적물을 통한 교양사업 등을 통하여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인민들의 힘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비범성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이것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으며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 당의 일심단결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격정속에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에 대하여 감동깊이 말해주는 혁명력사도록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들에서는 혁명력사도록해설과 관련한 분공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도록해설사업이 대중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구수하면서도 통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도록해설사업을 통하여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욱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절절한 사상감정에 맞게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비롯한 추억깊은 노래들에 대한 보급까지 잘 안받침하여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은 커다란 실효를 거두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재령광산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서 직관선동, 방송선전차에 의한 선전 등에 힘을 넣고있다.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버이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보여주는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송선전차에 의한 선전사업은 대중의 심장을 쾅쾅 울려주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만경대봉화피복공장 당조직들에서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지위를 명철하게 밝히신데 기초하여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불멸의 업적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앞에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업적, 인민군대를 우리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드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억척같이 다지신 업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새겨주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사업을 령도하시면서 밝혀주신 숭고한 뜻대로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숨결을 같이하는 참된 실천가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격동의 1970년대에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맹활약을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던 자랑을 안고있는 안주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이 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는 공장들과 당면한 영농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협동벌들에서 대중과 일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심장에 열정의 불을 달아주고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과 관련한 선전선동자료들을 가지고 전투의 정황과 조건에 맞는 사상교양사업들을 기동적으로 능란하게 벌려나가는가 하면 제일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령을 치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나가고있다.

초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일군의 사업권위는 간판이 아니라 대중을 위하여 바치는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의 전과정을 이 신작칙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일군들의 사업정형을 총화할 때마다 군안의 전투장들에 나가 매 일군들이 진행한 구체적인 사업실태를 놓고 혹 군중과 한덩어리로 어울리지 못하고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사업한 일은 없는가를 스스로 량심적으로 돌이켜보도록 하고있다.

대중의 눈빛앞에 늘 자신들을 비쳐보며 분발하는 일군들의 투쟁모습은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어디서나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연탄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당사업실천에 드팀없이 구현할 각오를 안고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사색을 앞세우면서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사무실이 아니라 생산자대중이 일하는 대고조전투장들을 최전방지휘소로 삼고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는 한편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긍정적인 모범을 찾아 적극 일반화해나가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의 결과는 뭐니뭐니해도 대고조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있다.

올해신년사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새겨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누구나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온 나라에 대경사를 불러왔던 자랑을 안고있는 성강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에 모든 일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청천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도 당조직들은 하늘을 찌를듯 한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가 드팀없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들은 전투원들 누구나가 김정일애국주의의 무한대한 위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떨치며 조선속도창조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국가과학원 당조직에서는 연구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보폭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이곳 당조직의 일군들은 특히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을 도와주기 위한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 모든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당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잘 지을 때만이 령도업적단위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다는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혁신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선교편직공장 당조직을 비롯한 경공업부문 당조직들과 수산, 전력, 철도운수부문 당조직들 등 전국각지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대고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면서 성과를 날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천출위인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각지 당조직들의 역할에 의하여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불패의 위용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구들마다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당의 원대한 뜻과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자

백두산건설부대의 위력떨치며 고산과수농장건설 적극 추진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618건설돌격대를 무어주신 때로부터 지난 14년동안 돌격대는 당과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위력한 백두산건설부대로 자라났다. 이 나날 돌격대는 고산과수농장을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나감으로써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그때로부터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수십정보씩의 토지정리와 과수원보수, 16만 8천여대의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 260여정보의 과일나무심기를 진행하고 50여개소의 용배수구조물과 30여㎞의 구획상수망공사, 500여세대의 살림집과 50동의 공공 및 생산건물건설을 완공하였으며 쇠그물울타리공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위대한 선군의 력사가 뜨겁게 어려있는 철령기슭에 천지개벽의 새풍치를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고산과수농장건설을 어버이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드센 공격전을 벌렸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도로건설을 앞세우면서 모든 공사대상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려단들에 전투과제들을 정확히 주고 일정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방도들도 알려주었다. 모든 정치일군들은 각 단위들에서 백두산건설부대의 위력을 떨치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토지정리전투장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자강도려단의 일군들이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로 전투승리의 담보를 마련해나갔다. 돌격대원들은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세찬 바람속에서도 무거운 흙마대를 메고 쉬임없이 달리면서 그날과제는 그날로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남도려단 운수중대 전투원들이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대오의 앞장에서 높고낮은 언덕들을 정리하였다.

함경북도려단 어랑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작업도중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다들었으나 주저하지 않고 결사전을 벌려 일정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많은 량의 토량처리를 한꺼번에 해제낄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의 돌격대원들도 자신만만한 배심을 안고 실적을 높여나갔다. 결과 토지정리전투과제를 지난 2월말까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파수원조성과 도로건설에서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남포시려단에서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공정별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파일나무구뎅이파기와 유기질비료넣기, 하천정리 등 맡겨진 모든 공사를 3월 중순전으로 끝냄으로써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도로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시려단에서 깬돌생산을 앞세워 남먼저 도로포장준비를 끝내고 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작업량이 방대한 조건에 맞게 남포시려단에서는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전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평안남도려단에서는 기술적지도에 힘을 넣어 도로포장의 질을 높이였다. 황해남도, 황해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한m의 도로를 포장해도 조국과 후대들앞에 떳떳이 책임질 각오로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해나갔다. 각 도려단들에서는 도로포장을 앞세우면서 간선도로보수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5월 한달동안에 수㎞의 도로포장과 간선도로보수를 해제끼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결사의 각오를 안고 돌격대원들이 쇠그물울타리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 천리마의 기상,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온 전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으로 드센 공격전을 벌려온 황해북도와 함경북도려단들에서도 매일 수백㎥의 돌과 토량을 처리하며 기초파기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성과가 높아지는데 맞게 시공을 전문화하여 건설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돌격대원들은 건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용배수로공사, 콩크리트지지대생산과 세우기, 호원보수를 비롯한 여러 작업도 계속 힘있게 내밀었다.

함경남도, 황해북도려단들에서는 기초굴착을 앞세우면서 배수구조물공사를 전투적으로 다그치였다. 평안북도려단 대대들의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부족되는 휘틀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옹벽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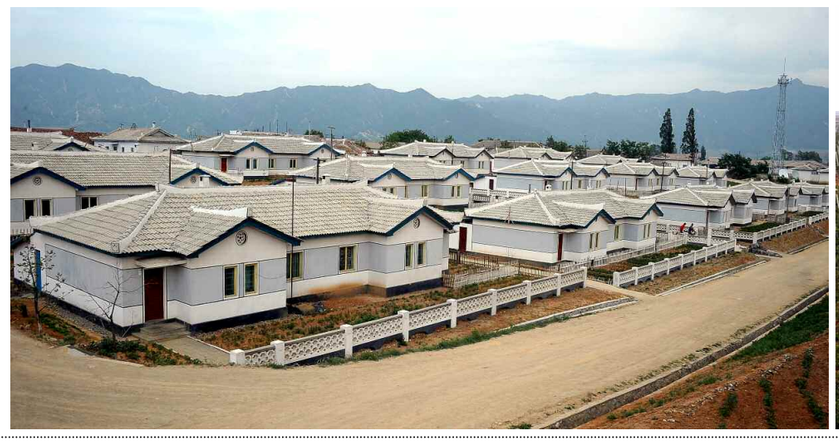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떨쳐나선 평양시려단 대동강구역대대 돌격대원들은 콩크리트지지대생산에 필요한 모래와 깬돌을 지장없이 보장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전력공업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하나가 수백㎏이나 되는 전주대들을 목도로 운반하고 세우면서 송전 및 배전선공사를 다그쳐나갔다.

5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다른 공사장마다에서도 전례없던 혁신이 창조되였다.

지금 돌격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고산과수농장건설을 끝낼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영철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백수십만t의 석탄을 더 생산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드높이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들에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백수십만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각지의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지하막장마다에서 충정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림으로써 인민경제 주요전선들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화력발전소석탄보장을 맡은 서부지구탄광들에서의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작전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서부지구의 대규모탄광들에서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최근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화력탄보장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것은 지난 20년래의 보기 드문 성과로 된다. 월봉탄광, 형봉탄광, 서창청년탄광에서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이 자기 단위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안고 혁명적인 일본새로 사업하고 투쟁함으로써 전반적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의 전망이 열리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순천지구의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 북창지구의 남덕탄광, 득장지구의 명학탄광, 개천지구의 봉천탄광, 조양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최근 개천지구의 신립탄광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하고있다.

강동지구의 흑령탄광, 합남지구의 고원탄광, 명천지구의 석성탄광, 경원지구의 고건원탄광, 룡북청년탄광, 온성지구의 중봉탄광 일군들과 탄부들도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만만한 배심을 안고 석탄증산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있다.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의 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성의 주되는 목표로 선정된 제남탄광 3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비롯한 수십개 대상의 생산능력확장공사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나라의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각지 중소탄광의 탄부들도 분연히 떨쳐일어나 증산투쟁을 벌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하였다.

각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장마철석탄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갖추면서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할 한마음을 안고 지하막장마다에서 진격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화학공업기지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화학제품생산기지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매달 비날론과 농약, 염화비닐과 가성소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둔데 이어 6월에도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화학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우리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고 정상화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탄광과 광산, 철도운수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지에 찾아가 풀어주면서 원료, 연료를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공정간련계를 긴밀히 해주면서 로력조직과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설비관리와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비날론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합성직장, 중합직장, 증기1직장과 수평방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매달 비날론생산계획을 수행한 자랑을 안고 이달에 들어와서도 비날론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원료직장과 카바이드1, 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석회로와 카바이드전기로운전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깐지게 하면서 비날론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해주기 위해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농약과 염화비닐, 가성소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에서도 계속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농약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5월까지 년간 살충제생산계획과 상반년 살초제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을 안고 사회주의농촌들에 질좋은 농약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염화비닐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정간련계를 긴밀히 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원가를 낮추면서 더 많은 염화비닐을 생산하여 경공업부문 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액체염소직장과 아세틸렌직장, 질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염화비닐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앞질러가며 보장해주고있다. 가성소다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전해조를 비롯한 설비, 장치물보수를 앞세우고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불멸의 교과서로 삼고

무궁토록 빛나라, 조선로동당기여

이른새벽이였다.

청신한 공기가 흐르는 정원의 고요를 가볍게 흔들며 나직한 발자욱소리가 울리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밤을 집무실에서 꼬박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깊은 사색속에 걸음을 옮기고 계시였다.

세차게 펄럭이는 당기발을 이윽토록 감회깊이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청사 창공높이 휘날리는 당기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승리와 영광의 기발이며 혁명의 기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50년 세월이 흘렀다.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우리 당기발은 오늘도 당중앙위원회청사 창공높이 휘날린다.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는 격정의 노래 울려퍼지는 뜻깊은 6월의 하늘가에 펄펄 나붓기는 조선로동당기를 삼가 우러르는 천만심장은 이 시각 무엇을 뜨겁게 토로하고있는것인가.

* *

우리의 당기,

우러를수록 눈부시고 새 힘이 솟구친다.

그 세찬 퍼덕임소리가 약동하는 내 조국의 벅찬 숨결로 안겨와, 그 붉은 기폭이 천만자식을 따뜻이 품어안아주는 어머니의 넓은 품으로 느껴져 자나깨나 가슴속에 안고사는 우리 당기발이다.

—당기여, 그대는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

인민의 심장은 이렇게 웨친다.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이,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여기에 고동친다.

장장 반세기 조선로동당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이날은 주체34(1945)년 10월 10일과 함께 조선로동당의 력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행운의 날, 영광의 날이다.

이날과 더불어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세기의 한복판에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며 자기의 력사우에 위대한 승리를 아로새겨올수 있었다.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는 성스러운 추억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시며 우리 당을 강한 조직력과 전투력을 지닌 힘있는 당으로 이끌어주신 1960년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져주신 197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속에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기상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주신 1980년대…

진정 그 나날들에 우리 당의 존엄과 위용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으며 조국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전변되였던가.

이 나라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으시고 곡절많은 운명의 주인공들의 마음속아픔도 헤아려보시며 그늘없는 사랑의 빛발을 뿌려주시는 친애하는 그이께 매혹되여 한 시인이 심장의 붓을 들어 쓴 서정시 《어머니》,

그것은 비단 한 인간의 목소리만이 아니였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우리 당, 세상에 없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온 나라 인민이 터친 뜨거운 진정이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수십년간 사회주의위업을 향도하여온 당들이 련이어 무너지던 그때 폭풍을 맞받아 더 세차게 나붓기던 우리의 당기여,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우리 당기발이 더 힘차게 휘날리게 하여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헌신의 천만리길이 당기의 붉은 기폭에 뜨겁게 어려온다.

인민의 행복 위해 꺼질줄 모르던 당중앙창가의 불빛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사생결단의 전선길을 달리는 야전차의 불빛으로 이어질 때 인민이여, 우리 얼마나 뜨거움에 목메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우리 원수님하신 말씀 가슴을 울린다.

—장군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같은 인생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였습니다. …

물어보자 력사여,

그 언제 어디에 우리 장군님처럼 새벽 2시를 초저녁으로, 달리는 야전렬차에서의 30분간의 휴식을 하루휴식의 전부로 여기시며 불같은 혁명시간을 이어오신 그런분이 있었던가.

잊을수 없다. 때없이 되새겨지고 그때마다 눈굽 찌릿해지게 하는 우리 장군님의 진정의 고백,

나도 인간인것만큼 힘이 들고 잠이 그리울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편안히 휴식할수도 없고 마음놓고 잠을 잘수도 없는 몸이다, 이제 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되면 그때에 가서 인민들의 소원대로 마음놓고 휴식도 하고 밀렸던 잠도 실컷 자보려고 한다고 하시던 그 말씀, 이 길에서 붉은기를 들고나가다가 쓰러지면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할것이라고 하시던 그 뜨거운 토로가 못 견디게 가슴을 파고든다.

당이란 무엇인가를, 당기의 붉은 기폭이 어떻게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지는가를 고결한 헌신의 한평생으로써 력사에 아로새기신 우리 장군님,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타오르는 불길로 사시였고 영결의 그 시각에조차 한폭의 붉은 당기를 가슴에 안고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의 존함, 그이의 한생, 그이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기에, 우러르면 위대한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가 안겨오기에 눈부시고 또 눈부신 조선로동당기이다.

우리 다시 눈길을 들어 성스러운 당기를 우러른다.

바라볼수록 그 자태 그리도 눈부신것은 정녕 무엇때문이던가.

창창한 우리의 미래!

바로 이것이 당기의 세찬 퍼덕임소리에 실려오는 뜨거운 선률이다.

무심히 설수 없는 6월의 이 언덕이다.

우리 장군님의 당령도사가 50년으로 이어지고 이제 또다시 60년, 70년, 80년…끝없이 이어지게 된다는것은 사실 경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는 당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업적으로 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당령도사가 세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게 된 계승의 력사는 기록되여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그 력사가 무궁토록 이어질것임을 인민은 확신하고있다.

래일에 대한 이 락관, 미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은 과연 어디서 빛발치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진두에 모시고 혁명해온 나날의 고귀한 체험이 안겨준 확신이다.

그이와 함께 살며 투쟁해온 날과 달은 우리에게 조선로동당의 백년, 천년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신념의 눈을 주었다.

인민의 존엄과 힘을 최대로 떨쳐주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기약해주는 위대한 당에 대한 찬가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6월의 푸른 하늘가에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당기를 우러를수록 조선로동당을 이끌어가시는 절세위인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온다.

언제나 조국수호의 최전방에 계신 우리 원수님,

선군만이 인민의 운명, 인민의 존엄을 지켜줄수 있기에, 오로지 그 길에서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 당기폭에 온 나라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을수 있기에 적들의 총구가 지척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초소에도 나서시였고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풍랑사나운 배길도 헤치시였다.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아래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현실로 꽃피워준 핵뢰성에 이어 병진의 포성도 높이 울려주시였다.

무적의 총대가 굳건히 떠받드는 위대한 당, 강철의 당에 대한 신뢰심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가슴펴고 보란듯이 그리고 보무당당히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당기여,

그대의 모습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껴온다.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보살펴주는 어머니품의 위대한 상징인 당기에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당기는 학생소년들에게 자기의 붉은 자락을 소년단넥타이로 매여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감싸안아 보살펴주는 기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길도 붉은기를 덮고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생은 붉은기를 알고 붉은기와 함께 가는 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이 세상 그 어디에 당기와 생사를 하나로 잇고 당기의 퍼덕임소리를 어머니가 안겨준 삶의 박동처럼 간주하는 이런 인민이 있던가.

이 나라 아들딸들을 모두 붉은 기폭에 휩싸안고 비바람, 눈보라 다 막아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끝끝한 해병들이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것이 너무도 절통하시여 온 밤 잠 못 이루시며 몸소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사진을 고르고골라 만든 천연색사진들을 우리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정히 싸주시던 우리 원수님,

조국을 위해 바친 군인들의 생은 끝나지 않으며 당기발과 함께 영생한다는 삶의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그들모두를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으니 떠나간 전사들도 변함없이 한피줄로 굳건히 생을 이어주는 그 품을 어찌 어머니라 부르지 않을수 있으랴.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도 탓하지 않고 열백번 다시 일으켜 혁명의 붉은기아래 세워주는 은혜로운 그 품속에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전사들은 그 얼마이던가.

2.8직동청년탄광의 19명 굴진공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절절한 고백이 울리고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서 나라앞에 지은 죄를 씻고싶어 우리는 함께 탄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숙불세라 있는 힘껏 일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어쩔수 없이 깃들던 그 그늘을 우리 원수님께서 말끔히 가셔주셨습니다.》

소대가 조직된 첫해에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그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에 우리 원수님 새겨주신 사랑의 친필,

《동지들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당은 동지들을 굳게 믿습니다.

김 정 은

2013.2.27》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이제는 두려울것도, 더이상 바랄것도 없다며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오열을 터치던 탄부들이여,

그렇게 한명한명을 당기폭에 감싸안아준 위대한 어머니이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늘 가르치고 계신다.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라!

우리의 당기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기발로 세기의 하늘가에 더 높이 휘날리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 바치신 로고는 정녕 끝이 없다.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로동당만세소리 끝없이 울려퍼지는 그 하나하나의 행복의 요람들이야말로 우리 당기발이 펄펄 나붓기는 진정한 계양대인것이다.

이 시각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고운 꿈을 꽃피워주시려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들이 모든것이 흥하고 풍족한 강성국가에서 만복을 누리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고있다고, 나는 우리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위하여 이 몸을 깡그리 불태울것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하여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것이라고 하시며 불같은 순간순간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모습앞에 눈물이 고여오르고 머리가 숙어진다.

너무도 극진하고 너무도 열렬하고 너무도 숭고한 그이의 진정이 그대로 비껴있어 더더욱 눈부시게 안겨오는 우리의 당기이다.

당기여,

그대 불같고 줄기찬 열정이 안아올 조국의 젊음을, 세월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의 빛발과 더불어 더더욱 아름다와질 래일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당기를 운명의 기발로 간주한 인민의 마음속에서 당기를 내리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위대한 어머니당을 위해 몸과 마음 아낌없이 바칠 인민의 의지 천백배로 다져진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어려오는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는 선군의 내 조국을 백전백승에로 향도하며 천만년 무궁토록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어머니의 품!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친근한 부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주체64(1975)년 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70일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표창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받으시였다.

명단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왜 일을 잘한 사람들이 더러 빠졌는가고 물으시였다.

70일전투를 몸소 발기하시고 진두지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혁신자, 공로자들의 이름까지 환히 알고계시였던것이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이번 표창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에서 문제시되는 일부 사람들을 고려하였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순간 위대한 장군님의 안색은 흐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0일전투기간에 그 문제시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고, 그런데 그들을 표창사업에서 빼면 되는가고, 그렇게 하는것이 무슨 원칙이라도 지키는것처럼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심한 자책감에 잠겨있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고개를 숙인채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운다고, 그 뒤에 수십명의 가족, 친척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한다. 그들이 바라는것은 바로 당의 믿음이다. …

은정넘친 표창이 자기들의 가슴에 안겨지던 날 혁신자, 공로자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였던가.

자기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며 끝까지 책임져주는 우리 당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품이라는것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간직한 그들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행복한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어머니 우리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일심단결은 장군님의 혁명철학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위해 한평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단결은 일심단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였다고 하시면서 일심단결은 나의 혁명철학입니다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크나큰 감동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철학을 심장에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불같은 결의를 다졌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어느해 정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게서 배우며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당일군은 대중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대중의 호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가르치심이였다.

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 당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구호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존재로 숭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여있어 일군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구호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삶의 구호로 깊이 간직되였다.

대오의 앞장에 서라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우리 당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서 고난과 시련을 뚫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어느해 정월 초하루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자리에서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자면 모든 당일군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면 그 어떤 장벽도 뚫고 산도 옮길수 있을것이라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

구호를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벅차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말씀에는 전국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을 불러일으켜 준엄한 시련을 과감히 부시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시려는 철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심장마다에 무한한 열정의 불길을 일구어주며 천연암반처럼 자리잡았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세이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빅토리아

세이쉘공화국 대통령

제임스 알릭스 미쉘각하

나는 세이쉘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6월 15일 평 양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의 전진과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전투력이 강한 당은 없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는 어머니품》, 《혁명적당의 본보기》라고 높이 찬양하고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해나갈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라오스신문 《행안》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총비서는 곧 조선로동당이였고 조선로동당은 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는 어머니품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는 이렇게 찬양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것은 조선로동당의 기본특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잇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으로 존엄떨치게 되였다.

그렇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찬란하다고 격찬을 터치고있다.

전 광 남

조선로동당기를 혁명의 군기로 힘있게 날리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승리와 영광의 대번영기로 빛내이자

1970년대 일군들의 투쟁기풍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50돐이 되는 뜻깊은 6월 19일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께서 우리 당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지나온 년대들이 다 그러했지만 특히 1970년대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긍지높은 년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그 년대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값높은 삶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우리 당사상사업의 총적임무로 나서고있는 지금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당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우리 당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한 진짜배기일군들이였다.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던 그때 일군들은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었다.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사회주의경제건설, 문화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 혁명과 건설을 떠메고 나갈 혁명인재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당과 혁명대오가 철옹성같이 다져졌다. 이런 거창한 변혁들을 이룩하는데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름아닌 일군들이였고 그들의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적인 사업기풍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일군들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였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삶을 참답게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면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

일군의 첫째가는 징표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불같은 충정이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최대의 영광, 최대의 행운으로 여기였으며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드는 길에 한몸 아끼지 않았다.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령도자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투철한 각오, 령도자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다는 드팀없는 신념이 그들의 가슴속에 꽉 차있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과 의리로 간직한 그들은 령도자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불같이 헌신하였다.

실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이야말로 우리 일군들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귀감으로 된다.

일군들은 또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신념화된 인간이 되여야 한다.

혁명적언사나 맹세보다 당의 방침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내는 실천투쟁속에서 당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이 검증된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누리를 몰랐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업이 제기되여도 우는소리나 조건타발을 몰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었다. 진취성이 강한 일군, 무서운 정열가가 되여 대중의 앞장에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였다. 이렇듯 일군들이 초석이 되여 우리 당을 받들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였기에 당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가는 곳마다에서 눈부신 기적이 일어날수 있었고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로 불리우는 창조와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벅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시기 당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실천에 구현해나갈것을 바라고있는것이다.

지난해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하였던 인민군부대 정치일군들의 투쟁을 놓고보자.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정치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가장 어렵고 힘든 위치, 자칫하면 생명까지 바칠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에 몸을 내대고 이신작칙으로 군인건설자들을 이끌었다. 당의 구호를 웨치며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제꼈다. 하기에 그 정치사업의 위력은 대단히 컸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발휘한 그들의 투쟁기풍이야말로 1970년대 일군들의 투쟁기풍을 옳게 구현한것이며 온 나라 일군들이 그들처럼 투쟁할 때 최후의 승리는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다.

일군들은 또한 견결한 당적원칙성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해나가야 한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절대로 융화묵과하지 않았으며 강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은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혁명적원칙으로 우리 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전당에 령도자의 사상체계, 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될수 있었다.

인민이 알고 령도자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바로 그들처럼 살며 투쟁할 때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서의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질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니였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전경서

영원한 생명선, 투쟁의 교과서로

황해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뜻깊은 올해에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사업을 령도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당사업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 모내기전투기간에 도안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든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도적으로 모내기전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였던 때의 일이였다.

재령군에 내려가 들끓는 포전들을 밟아보며 모내기를 추동하는 정치사업들이 진행되는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던 도당책임일군은 당일군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다.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포전에 집중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지 농업근로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일하면서 앞채를 메고 내달리지 못하는 일군들이 있는것을 발견하게 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날이 눈앞에 다가온다. 절세위인의 당건설업적을 빛내여나가는데서 일군들이 옳바른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모내기전투과정을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키자.

도당책임일군은 군당위원회에서 해당 일군들을 대상으로하여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구어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격동적인 1970년대에 안주군(당시)당위원회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하부지도사업을 잘한 사실을 높이 평가해주신 령도사적도 다시금 깊이 새겨주면서 일군들의 자각을 비상히 높여주었다.

일군들이 담당한 농장들에 몇번 나갔는가 하는 회수를 따지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모내기전투장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얼마나 드센 실천력을 발휘하였는가 하는것을 놓고 사업을 평가하였다.

역시 도당위원회가 모내기전투에서 대오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들인 당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이 열배, 백배로 분발하게 한것은 잘한 일이였다. 당일군들 누구나가 군중과 한데 어울려 그들의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구령을 치면서 걸싸게 일해나가니 정치사업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분조별, 작업반별, 농장별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군의 모내기전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치달아올랐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해주시당위원회, 안악군당위원회, 연안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조직들에서 모내기전투과정에 제기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사업을 령도하시면서 보여주신 숭고한 풍모대로 철저히 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올해의 그처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속에서도 도에서는 계획된 면적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낄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영원한 생명선,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투쟁하는 이곳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로 하여 도의 영농사업에서뿐이니라 전반사업에서는 날로 큰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유훈관철에서 발휘된 당세포의 위력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얼마전 신포향당세포의 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편지를 올린 때로부터 2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의 당원들이 내세운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알아보았다. 신입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데 대한 결의목표가 응당한 수준에서 실현되지 못하고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세포가 새형의 대형양수기를 생산하는 실천투쟁속에서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당세포에서는 분공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들의 심장마다에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울데 대하여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여러차례에 걸쳐 깊이 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결의로 심장을 끓이며 떨쳐나선 작업반장 김성철, 당세포비서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신포향당세포의 당원들은 신입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면서 2대의 대형양수기를 단번에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 당세포의 전투력은 높아졌다.

이때뿐이 아니였다.

직장에 수백kg짜리 대형양수기의 날개를 주물품으로 제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초급당위원회는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이 과업은 그런것을 만들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하였다.

직장장 류재명, 초급당비서 임지원, 부직장장 리룡혁동무들은 오랜 기술자들을 찾아 주물품생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수입자재대신 우리 나라의 원료로 혼사물의 강도를 끝내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에 커다란 리익을 줄수 있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세포들에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는 처음에는 대형양수기 날개를 한달에 한개 생산하던것을 한주일에 한개씩 생산해내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종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주체93(2004)년 5월 신포향주철직장을 찾으시고 직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울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직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대상설비생산을 위한 주물품제작전투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높여나가고있다.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당창건기념탑관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요즘 당창건기념탑으로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수많이 찾아오고있다.

당창건기념탑관리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하여 강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강의합평회를 자주 조직하여 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적인 날을 맞으며 초급당비서 김승호동무는 얼마전에도 강사들의 모임을 잘 조직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교양과장 리향화동무는 김설련, 김지혜동무들을 비롯한 능력있는 강사들이 력사의 풍파속에서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전위대오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들을 잘 안받침하여 강의준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이런 준비밑에 진행된 강사들의 모임은 남혜영동무를 비롯한 신입강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강사들속에서 실력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강의들에서는 더 큰 실효들이 얻어지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강사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긍정적인 소행들을 널리 소개하면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주고있다.

강사들은 천만군민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당창건기념탑에서 강의활동을 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금 최대의 마력을 내여 일하고있다.

그리하여 당창건기념탑의 원형띠에 새겨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글발에 대한 해설, 당창건기념탑건립에 대한 해설 등 강사들이 진행하는 모든 해설강의는 언제나 참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들의 강의는 참관자들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더욱 빛내여나갈 충정의 결의를 굳게 다지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사랑과 믿음의 대명사—《우리 당비서》

금야군 가진로동자구 초급당비서 백성숙동무의 사업을 놓고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일군들모두가 인민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우리라는 칭호로 불리워야 한다고 우리 장군님 얼마나 간곡히 당부하시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을 위한 일에 헌신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는 당일군들가운데는 금야군 가진로동자구 초급당비서 백성숙동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라는 말은 관직이 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일군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고귀한 칭호이며 존경과 사랑,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백성숙동무가 초급당비서로 임명된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전이였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백성숙동무는 며칠밤이나 잠들지 못하였다.

욕망은 컸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 어떤 때는 오해를 받는 일까지 있었다.

(당일군은 어떤 사람일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을 밤깊도록 학습하는 그의 눈앞에 자애로운 영상이 눈시울뜨겁게 안겨왔다. 당총비서이시기 전에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천만군민을 사랑과 믿음으로 따뜻이 품어안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자식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자애롭고 살뜰한 어머니가 되는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우러르며 백성숙동무가 찾아낸 사업의 종자였다.

그는 밤길을 즐겨걸었다.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걸은 밤길, 한 로당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석달동안 걸은 밤길, 매 가정의 화목을 도모해주려고 남몰래 마음을 쓰며 걸은 밤길…

초급당비서의 사무실을 누구나 때없이 찾아왔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모두 만나 제기된 문제를 다심하게 풀어주느라 자기 살림을 돌볼새없이 늘 바삐 지내는 백성숙동무에게 일부 일군들이 롱담삼아 말한적이 있었다. 사무실문턱이 너무 낮지 않은가고.

그때 백성숙동무는 말하였다.

《낮을수록 좋은것이 당일군들의 방문턱입니다. 그래야 대중은 우리에게 속을 주고 또 우리 당을 신뢰하게 됩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그가 찍어간 헌신의 자욱 또한 그 얼마인지 다 헤아릴수 없다.

백성숙동무는 인생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들인 고금성, 차효심동무들을 안착시켜 결혼상도 차려주었다. 결혼식날 고마움의 눈물에 젖어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목메여 부른 신혼부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렸다.

《…비서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을 보았으며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아버지원수님의 바다보다 더 넓고넓은 사랑의 품이 있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행복한 부부로, 선군의 큰집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새 식솔이 되였습니다.》

이들의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손길로, 어머니마음으로 고금성, 차효심동무들을 따뜻이 품어준 초급당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은

2013.7.11》

이라는 믿음과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오늘 백성숙동무에게는 호칭이 많다. 《우리 당비서》, 《우리 비서어머니》…

그 호칭들을 하나로 쥐여짜면 공통적인것은 우리이다.

백성숙동무처럼 모든 당일군들이 우리라는 호칭으로 정답게 불리울 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은 더욱 활짝 꽃펴날것이며 어머니 우리 당의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질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46호 주체103(2014)년 6월 1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다음의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자재상사
만경대구역 원로남새전문농장
대동군 상서협동농장 제2작업반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제7작업반
숙천군 검흥농장 제6작업반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제2작업반
평북돼지공장
룡천군 룡암포협동농장 제5작업반
철산군 동평협동농장 제2작업반
대관군 읍협동농장 제5작업반
안악군 룡산협동농장 제4작업반
태탄군 수동협동농장 제4작업반
사리원경암술공장
신평군 읍협동농장 남새작업반
자강도림업관리국 고인갱목생산사업소 생필직장
위원군 고보협동농장 제6작업반
만포시 미타협동농장 제4작업반
김화군 건천협동농장 제1작업반
세포군 서하축산전문협동농장 제2작업반
함경북도정보통신국 시외직장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고원군 군내협동농장 제4작업반
금야군 룡산협동농장 제7작업반
함주군 신성협동농장 제1작업반
홍원군 봉화협동농장 제2작업반
대홍단군 개척농장 제5작업반
항구구역 도지협동농장 제2작업반
와우도구역 대대남새전문협동농장 제4작업반
라선시 후창농장 제2작업반
라선시 굴포농장 제3작업반
황주역
단천철도분국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
함흥철도국 함흥고무가공사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프레스직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47호 주체103(2014)년 6월 10일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에 3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인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에 3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현실성있게 세운 기술혁신목표

덕성탄광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웠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산소발생기를 맡아 완성하기 위한 전투부터 시작하였다. 정작 달라붙고보니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소조책임자 유광춘동무는 산소려과공정의 기본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과학연구기관들과 기계공장들을 찾아 수백리밤길을 걸었다. 소조원 홍광명동무는 산소발생기의 심장부라고 말할수 있는 설비의 설계를 맡아 탄광의 공업시험소 기술자, 로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거쳐 산소발생기가 성과적으로 제작완성되였다. 하여 자재와 로력을 줄이면서도 용접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실에서 걸리고있던 여러 기술혁신대상들을 완성도입하여 석탄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이악하게 실천한 결과가 안아온 성과였다.

본사기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청진강재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기념우표들이 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는것을 기념우표들이 전하고 있다.

기념우표들의 웃부분에는 우리 당마크가 부각되여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기념》, 《주체53(1964)-주체103(2014)》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주체53(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아크릴화 《우리 당 력사의 새 아침》을 형상한 우표가 있다.

묶음전지에는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언제나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과 함께 계신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조선화들인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여》, 《강성대국의 축포성》, 《풍년든 보리밭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장군님만 믿고삽니다》를 형상한 우표들이 편집되여있다.

기념우표들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하는 강철의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의 선군혁명과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시) 붉은기앞에 떳떳하리라

오 선 학

어제도 나는
이 기발아래 살았고
오늘도 나는
이 기발아래 사노라

허나 붉은기여
내 새로이
이 마음 그대앞에 세우며
량심에 묻노라
붉은기앞에 내 진정 떳떳이 사는가를

성스러운 기폭의 그 붉은빛으로
일찌기 이 가슴에 백두산을 새겨주었고
드놀줄 모르는 삶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준 신념의 기발이여

내 정녕
그대의 붉은빛의 그 의미
선혈의 그 무게를 다 알고
그대의 붉은색조로 숨쉬며 살아왔는가

대지에 움터나는 봄싹처럼
내 어린시절 붉은 넥타이 맬 때
한없이 순결하던 그 마음
붉디붉은 붉은기앞에
당원의 엄숙한 첫 선서 다질적에
심장에 끓던 그 열혈의 피

아, 생의 맑은 거울인양
백두의 넋이 어린 붉은기앞에
삶의 굽이굽이 내 마음 비춰보며
붉게 살았다고 추억할수 있다면
나는 정녕 얼마나 떳떳한 전사이랴

내 솔직히 고백하건대
헐치 않더라 붉은기여
생눈길도 있고 험한 령도 있는
준엄한 혁명의 먼먼길에
그대 붉은 넋만을
한점 티없이 고이 간직한다는것은

붉은기나라에서 산다고 하여
절로 그 넋으로 사는것이 아니더라
그 기발에 생을 서슴없이 바치기 전에는
붉은기인간이 된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리

붉은기!
그것은 백두산의 아침 노을이더라
주작봉 선렬들의 후더운 영생의 숨결
차디찬 바다물에 뛰여들어 따라서며
백두령장의 안녕을 눈물에 젖어 바라던
외진 섬 초병들의 그 불타는 눈빛
마식령의 밤하늘을 물들이던 기적의 불보라

어찌 백만금을 뿌려 살수 있고
어이 아부로 얻을수 있으랴
쓰러지면서도 그 기발을 높이 드는 정신
숨지는 순간에도 순결한 마음으로
그대를 바라보는 충정의 눈빛
오직 그것이더라
붉은기의 넋으로 산다는것은

하거니 붉은기여
내 혹시 꿈속에라도 잠시나마 그대와 멀어진다면
정녕 그대의 뜨거운 열풍속에 깃들기 주저한다면
신성한 그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시라
조국앞에 아들임을 영영 지워버리시라

붉은기를 떠나서야 내 무슨 삶이고 보람이랴
그대 세찬 휘날림속에
내 고향의 멋진 선경이 꽃피고
소중한 꿈과 리상 이루어 만복을 누리는
백두산대국의 우리 집 밝은 창문이 열리더라

하기에 내 설사
망망대해에 홀로 있을 때
그 누가 나더러 억만금의 유혹으로
그 어떤 다른 색의 기발을 지니라 한다면
나는 우뢰치듯 웨치리라
—나의 심장속엔 붉은기가 있다!
붉은기는 변색을 모른다!

내 어떤 역경에서든 변함이 있을소냐
붉은기의 원쑤들과 판가리시각이 온다면
더운 피를 다 쏟아 쓰러진다해도
신념과 순결의 혈점으로
수령결사옹위의 붉은 성벽에 굳어지리라

그렇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의 붉은색
헌신과 충정으로 불변하리라
그대앞에 부끄러움없이 떳떳하리라
그 붉은 기폭에 내 인생을 얹고
생의 불을 뿜으리라
붉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리라
아, 김정은붉은기로 누리를 덮으리라

근로단체들에서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한 경축모임들이 17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되였다. 경축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근로단체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문철성,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로동자 로광국,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김은정, 대성구역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강림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당을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해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위업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를 마련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자신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 모든 동맹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두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성회관에서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모란봉구역녀맹위원회 위원장 류영옥, 보통강구역 신원동 초급녀맹위원장 장영란, 평천구역 륙교1동 녀맹원 오금주가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승리적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당김일성주의화로선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로선을 받들고 자식들을 더 많이 낳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대병사로 훌륭히 키우며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 전쟁로병과 영예군인, 유가족들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농촌지원과 누에치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이 땅우에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동맹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17일에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사랑과 은정만을 안겨주시며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노래와 춤 《노래부르자 6월19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어은금과 독창 《장군님은 온 세상이십니다》, 무용이야기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민요제창 《고마운 당의 품》, 목금과 5중창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위업수행의 향도적력량으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의 운명과 미래를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혁명의 최전방에 계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되새겨보게 하는 공연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씩씩하게 자라나는 행복동이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한 독시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가야금을 위한 민족기악합주 《제일 좋은 내 나라》 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펼쳐졌다.

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에 떨칠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우리 학생소년들의 불타는 결의를 반영한 《원수님 사랑안고 달려가자 미래로》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7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까타르국가 내각 수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아브둘라흐 빈 나쎄르 빈 할리파 알 타니 까타르국가 내각 수상이 15일 의례방문한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인사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내각수상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정부와 인민의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다.

까타르정부는 두 나라 령도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쌍무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과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8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개막

제8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가 개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받들고 평양제1백화점 상품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인민들의 수요가 높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시회에는 성, 중앙기관들과 전국의 공장, 기업소, 합영, 합작단위, 무역회사들에서 내놓은 1 600여종의 인민소비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17일에 있었다.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상품보장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경남상업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8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에 쓸모있는 가치있는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기 단위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연구와 주문자들과의 계약실무를 통하여 이번 전시회가 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고 더 좋은 상품을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봉사단위들에 보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보천보훼불상체육경기대회

활쏘기결승경기 진행

보천보훼불상체육경기대회 활쏘기결승경기가 17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있었다.

11일부터 시작된 활쏘기경기에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압록강국방체육단, 수양산체육단, 송악산체육단, 2. 8비날론련합기업소체육단, 흥남비료련합기업소체육단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1조와 2조, 압록강국방체육단 1조 선수들이 참가한 결승경기는 남, 녀단체경기와 혼성단체경기, 남, 녀개인경기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선수들은 당이 밝혀준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경기전법으로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잘 보여주었다.

남, 녀단체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1조 선수들이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 선수들이 각각 2등을, 수양산체육단 1조(남자)와 압록강국방체육단 1조(녀자) 선수들이 3등을 차지하였다.

혼성단체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1조가 1등을 쟁취하였으며 압록강국방체육단 1조와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가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남, 녀개인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의 전철, 강은주선수들이 1등을,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리효성선수와 압록강국방체육단 최옥실선수가 2등을, 수양산체육단 백명철선수와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장금향선수가 3등을 차지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였다.

모택동반명명 55돐기념 친선모임 진행

모택동반명명 55돐기념 친선모임이 17일 동평양제1중학교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학교교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지난 55년간 모택동반이 중국 베이징제5중학교 김일성반과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두 나라 학생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올해는 조중외교관계설정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모택동주석께서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새 세대들에 의하여 계승발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수재양성기지로 훌륭히 꾸려져 나라의 인재후비육성에 이바지하고있는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중국대사관성원들은 학교에 교육설비들을 기증하였다.

몽골을 방문하였던 친선대표단 귀국

몽골을 방문하였던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이 17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이 마중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박영기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의 높이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공적의 높이》

남녘땅에 울려퍼지는 열화같은 칭송의 목소리

지구상에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고있지만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처럼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존엄높고 위력한 당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적시고있다. 어찌 우리 인민뿐이랴.

조선로동당을 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강위력한 전위대로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는 남녘인민들속에서도 세차게 울려나왔다. 온 남녘땅에 울려퍼진 그 열렬한 칭송의 반향가운데서 일부를 소개한다.

《사랑과 믿음의 위대한 화신》

《우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북민중만의 령도자가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의 령도자라고 확신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처럼 통일운동, 혁명운동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지도자는 없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주체사상을 정치철학으로 삼고 북을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로, 진보적인류의 희망과 미래로 만드시였다. 주체사상이 아니였다면 6.15공동선언도 발표될수 없었을것이다.》(남조선잡지 《말》 2002년 6월호에 실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전체 조선민족의 령도자》중에서)

《혁명적수령관과 주체사상을 구현한 민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는 수령과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자동차는 비록 크기는 작아도 체계가 우월하고 운전사의 기량이 뛰여나단 한번도 교통사고를 낸적이 없다. 다른 큰 자동차들이 자본주의태풍에 갈팡질팡하며 전복될 때에도 이 자동차는 훌륭한 체계와 탁월한 운전능력으로 난관을 뚫고나갔다. 그 비결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탁월한 령도에 있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이북의 당과 군대를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공적은 참으로 거대하다.》(남조선잡지 《말》 2002년 7월호에 실린 《주체사상과 혁명적수령관》중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중사랑의 정치가 있었기에 북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국난을 군대와 민중이 혼연일체가 되여 한치의 동요도 없이 이겨낼수 있었으며 오늘날 사회주의강성대국에로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지도자는 민중을 끝없이 사랑하고 민중은 지도자만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북의 놀라운 정치현실은 동지애의 위력,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은 무한대라는 진리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하나의 대가정과 같은 북의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사랑의 사회주의, 동지애의 사회주의, 인류가 오랜 기간 꿈꾸어온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리상향이다.》(2008년 2월 25일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홈페지에 실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동지사랑, 민중사랑과 믿음의 화신이시다》중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중사랑, 민중관은 서유럽정치인들이 생색내듯 펼치는 정치적수사, 화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되여있다. 하기에 북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사랑과 믿음의 화신이라 칭송하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중성은 단지 민중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봉사심이 아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민중을 세계 모든 운동의 주인의 지위에 놓고 사람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보는 진취적이고 변혁적인 견해를 정립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인간중시, 민중중시로선은 시류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로선이 아니라 빛나는 생과 정치의 전반에 걸쳐 면면히 녹아있는 그이의 기본정치로선으로 되여왔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저마다 민중에 대한 사랑을 내세우지만 이는 지배층 중심의 사회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한 기만술책일뿐이다. 남쪽만 보더라도 비정규직로동자들의 피눈물나는 절규는 자본성장의 환호성에 묻혀버리기 일쑤이다.

해당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라면 그리고 그 나라에 과연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존재한다면 민중사랑은 집권당의 정책에서 제시되고 철저히 관철되여야 한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이라면 응당 국가재부는 철저히 전체 민중의 립장에서 사용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민중생활의 향상이 나라의 첫번째 과제로 나서야 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중사랑은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고루 스며있다. 조선로동당은 민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의 이런 민중생활향상시책을 앞장에서 지휘하신분이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다.》(2008년 2월 15일 남조선의 《김정일장군연구 서울시민위원회》가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홈페지에 실은 기사중에서)

《이북정치의 기본리념은 이민위천이다. 이런 정치리념은 국가를 지배도구로만 리해한 일면적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지에서 독창적으로 규명한 민중사랑의 리념이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들이 낳은 이북의 현실은 어느것이나 다 전설적위인의 손길아래 꽃펴난 현대의 신화들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내걸고 정치를 하는 이북과 〈국민을 머슴으로 섬기겠다.〉고 했다가 〈국민을 머슴으로 안다.〉는 망언을 내뱉는 이남의 집권정당과는 참으로 대비된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2011년 7월 7일 남조선의 한진보정당홈페지에 실린 《이민위천의 이북정치》중에서)

《특출한 정치실력, 세련된 령도의 결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당의 참모습을 알려면 조선로동당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민중은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어머니당이라 부른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사회성원들의 정치적생명과 삶의 보호자이고 요람이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모습은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고 민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당은 이 세상에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친미사대와 권력야욕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는 시정배들의 무리만을 보아온 우리 이남민중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모습은 너무도 놀라웁고 희한한것이다.》

인천의 한 통일운동단체성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이북민중뿐아니라 온 겨레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당인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는 우리 이남민중의 심장속에도 꺼질줄 모르는 불빛으로 깊이 간직되여있다. 삼천리강토를 가로질러간 분렬의 장벽도 암흑의 천지를 밝히는 그 위대한 불빛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민중은 백승의 기상을 떨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모습에서 이 땅에 밝아올 통일의 새 아침을 확신하고있다.》

안동시의 한 토론회장에서는 이런 격정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북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 하고있지만 북이 동요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같은 세련되고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일심단결된 불패의 당이 있기때문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시련이 가로막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할것이다.》

광주의 한 재야인사는 《지금 이남의 뜻있는 사람들은 북의 조선로동당이 지도리념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공감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한 선군정치가 크게 성공하여 남북삼천리에 자주통일의 새봄이 올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부산의 한 인사는 동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북민중은 누구나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 그 품을 어머니품이라고 부르고있다. 그 비결에 대해 북을 방문하고 알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정책작성에서 민중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의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정치를 펼치고있다. 그러니 어찌 그 품을 어머니품이라 부르지 않을수 있겠는가.》라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서울의 한 지식인은 《조선로동당은 백승의 기상을 높이 떨치는 존엄높은 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의 사회주의가 위력한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혁명의 령도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주시였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민중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자기 주위에 굳게 묶어세웠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령도하여오신 북의 로동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제주도의 한 통일운동단체 책임자는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정치원로, 민족의 령수이시다. 조선로동당의 높이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공적의 높이이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시대가 나아갈 길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당안에 전일적인 령도체계와 독특한 정치방식을 확립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장군님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가슴속진정을 터놓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인의 한생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온 겨레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며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당으로 자랑떨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이남의 근로자들이 주인되고 잘사는 민주사회의 건설이 담보된다. 멀지 않아 통일조국의 새 아침이 밝아올것이다.》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조선로동당이 가리키는 애국의 길을 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회견에서 강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는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대표는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단합의 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든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운동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활달한 필체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우러러 온 겨레가 환호를 터치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수 없다.

이남민중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직접 체험하였다.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비범한 안목과 식견, 통이 크고 대담한 결단력으로 즉석에서 명쾌하게 풀어나가시는 그이의 탁월한 정치적수완에 이남민중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녘의 겨레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강철도 녹여낼수 있는 열화같은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고금동서의 그 어느 력사에도 장군님과 같이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령도자는 찾아볼수 없다.

지금 이남의 경향각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각계층이 모인 《민심의 광장》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국방위원장님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등 칭송의 목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오고있다.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과 인터네트홈페지들에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강철같은 통일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자주통일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다.》를 비롯한 글들이 게재되여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남의 도시와 농어촌마을 그 어디를 가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뜨거운 흠모의 숨결을 느낄수 있다.

민족자주사상과 열렬한 애국의지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기를 열어놓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은원수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였다.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것은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남녘의 애국민중은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제29차대회 진행

【도꾜 6월 16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제29차대회가 12일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오재세 총련중앙 조직국장,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이 랑독되였다.

강추련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녀성동맹조직들이 28기 사업기간 사상교양, 지부와 분회강화, 자녀교양, 폭넓은 동포녀성들을 망라한 민족문화운동, 조국통일운동과 대외사업을 적극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가는것이 29기사업의 총적방향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자녀교양사업에 전동맹적인 힘을 집중하며 민족문화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특색있게 기여하는 등 앞으로의 주력과업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일본인사들의 련대발언이 있었으며 그들이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추련부의장이 다시 선출되였다.

허종만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녀성동맹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따라 애족애국의 한길을 걸어온것처럼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이어 예술공연이 있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29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핵전쟁머슴군의 무모한 전쟁광기

남조선괴뢰패당의 끊임없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은 날이 갈수록 조선반도의 정세를 피할수 없는 핵재난의 위험계선으로 몰아가고있다.

새해벽두부터 그 무슨 《응징》과 《격멸》을 웨쳐대면서 화약내를 짙게 풍기며 돌아친 괴뢰호전광들은 북침핵전쟁도발을 중지할데 대한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방대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2월말부터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3월말과 4월에 들어와서는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적인 련합상륙훈련과 공화국의 전지역에 대한 공중타격을 노린 《맥스 썬더》라는 련합공중전투훈련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목적으로 한 괴뢰호전광들의 전쟁불장난소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있다.

최근에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조선동해에 미태평양함대의 《죤 에스. 맥케인》함과 이지스구축함들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련합해상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괴뢰들은 첨단장비들을 구비한 미해군함대를 앞세우고 동해의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니며 그 누구의 탄도미싸일요격과 미싸일기지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실전훈련에 미쳐돌아갔다.

그뿐이 아니다. 호전광들은 미국에서 수백종이 넘는 전쟁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남조선각 지역에 배치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F-16》전투기와 《C-130J》대형수송기들을 또다시 끌어들여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이와 동시에 괴뢰들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운운하면서 미국본토에서 진행되는 련합훈련에 괴뢰군부대를 참가시켜 그들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본토에서의 련합훈련에 대해 괴뢰들은 《북급변사태》에 대처하여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는데 기본을 두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사태는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기도가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위험은 괴뢰패당이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미국미싸일방위체계에 한사코 가담하려는 사실만 놓고도 명백히 알수 있다. 지금까지 남조선괴뢰패당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이 두려워 미국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을 숨기며 비밀리에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괴뢰패당은 《북핵 및 미싸일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THAAD》의 남조선배비가 필수적인것처럼 소란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결국 고고도요격미싸일들을 그 누구의 《위협》이라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합법적으로 끌어들여 미국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것이다.

미국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고고도요격미싸일 《THAAD》가 남조선에 배치되게 되는 경우 남조선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핵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기도가 완전히 실현됨으로써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전반이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에 처하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전쟁연습책동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들씌우려는 용납못할 평화파괴행위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가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도발에 환장이 되여 날뛰는 괴뢰당국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가고있다.

말로는 그 무슨 《신뢰》니, 《동북아평화협력》이니 하고 입이 아프게 떠들어대던 괴뢰패당은 보다싶이 외세와의 북침전쟁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의 낭떠러지에로 몰아넣고있으며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 하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괴뢰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위협하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은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대결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반역패당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처참한 죽음뿐이다.

라영국

일본우익보수분자들의 망동을 규탄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군마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사무국 성원 리화우가 11일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를 철거하려고 날뛰는 일본우익보수분자들의 망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지금 일본우익보수분자들의 책동으로 군마현의 한 공원에 세워진 추도비가 당장 철거당할 위기에 처하여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들과 량심적인 일본사람들이 추도비를 지켜내기 위해 각방으로 투쟁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해외동포단체들이 이 투쟁에 합세할것을 호소하였다.

괴뢰패당의 반인권적폭압만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임금인상투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금인상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이 땅에서 로동자들은 뼈빠지게 일을 해도 초보적인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는 임금을 받고있으며 그것마저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개탄하였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가 임금인상을 공약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돈과 리윤보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모든 로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싸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로총산하 조직들이 매일 임금인상을 위한 선전활동, 집회 등을 벌리는것과 함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련대투쟁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되기까지

‖ 강계고려약공장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 무균화, 무진화,

이제는 전국의 그 어느 고려약공장에 가보아도 이 말을 들을수 있다. 하지만 새 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하기에 주체90(2001)년 12월말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으로 일떠선 강계고려약공장을 찾으시여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데 대해 말씀하셨을 때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고려약제제라고 하면 약초를 오랜 시간 달여 만들던 종전의 방법밖에 모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새해를 앞둔 년말이여서 가서야 할 곳이 많으셨건만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의 놓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북방의 칼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주체97(2008)년 12월 중순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몇해전에 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날 고려약생산부문에서 전국적인 본보기단위가 될수 있게 보건성에서 공장을 잘 도와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에 넘치신 어조로 고려약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습성과 체질적특성에 맞을뿐아니라 약효가 높다고, 이제는 유럽나라 사람들도 고려약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시며 고려약의 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몇해후인 주체100(2011)년 4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또다시 강계고려약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오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안고 손꼽아 기다려왔던 이들은 그날 격정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느라 겹쌓인 피로가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에 너무도 짙게 어려있었기때문이였다.

(어버이장군님, 온 나라 인민들을 위해 그토록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면서도 어찌하여 자신의 건강만은 순간도 돌보지 않으시는것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아뢰이며 따라서는 일군들과 함께 오래동안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하다고, 이제는 강계고려약공장이 고려약생산부문에서 전국의 본보기단위가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무진화, 무균화하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약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나서는 새로운 목표들을 련이어 제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또다시 몇해가 흘렀다.

그 나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려 공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몰라보게 달라진 강계고려약공장의 자랑찬 현실을 통해 우리는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높이에 올라선 나라의 고려약생산과 더불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날과 달들을 가슴뜨겁게 새기게 된다.

본사기자 방경찬

6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 강냉이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6월 하순에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0.1~0.5℃ 낮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량강도에서 0.2℃정도 높고 그밖의 대부분 지방에서 0.9~2.1℃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13~46㎜ 많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5~92㎜ 많고 그밖의 지방에서 8~22㎜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논벼농사에서는 조절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주며 논물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조절비료를 적기에 알맞춤하게 주면 이삭아지수와 이삭당알수, 뿌리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조절비료를 바로 주지 못하면 무효아지가 많아지고 이삭당알수가 적어지며 아래마디사이가 늘어나 쉽게 넘어지거나 추락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조절비료주는 시기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절비료는 이삭패기 40~45일전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생육후반기 질소동화능력이 약한 품종들을 심은 포전들과 질소비료를 심층시비하는 경우 비료주는 시기를 5일정도 앞당겨 이삭패기 45~50일전에 주는것이 좋다.

조절비료량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생육후반기 비료를 많이 받는 품종들에 조절비료를 심층시비하는 경우 정보당 200㎏, 표층시비하는 경우 100~150㎏을 주는것이 좋다. 질소비료를 많이 받지만 쉽게 넘어지는 품종들에 조절비료를 심층시비하는 경우 150~200㎏, 표층시비하는 경우에는 100㎏정도 주어야 한다. 질소비료를 적게 받는 품종들에 심층시비하는 경우 실정에 맞게 이삭비료를 주지 않거나 혹은 50㎏ 내놓고 나머지를 조절비료로 주며 표층시비하는 경우 조절비료로 80~100㎏정도 주는것이 좋다. 동해안지대에서 생육후반기에 비료를 많이 받는 품종들에는 조절비료를 정보당 200㎏이하, 비료를 적게 받는 품종들에는 150㎏이하로 주어야 한다.

품종의 고유한 잎색을 고려하여 조절비료를 주어야 한다.

잎색이 연한 품종들을 심은 논에서 잎색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조절비료를 많이 주면 넘어지거나 병에 걸려 소출이 심히 떨어지게 된다. 생육전반기비료를 준 다음 벼의 잎색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조절비료를 주어야 한다.

조절비료를 질적으로 주어야 한다.

심층시비하는 경우 비료주는 깊이를 5~10㎝로 보장하여야 한다. 표층시비하는 경우에도 논물을 얕게 대고 조절비료를 준 다음 1~3일사이에 토양겉층을 제초기나 손으로 긁어주어 비료의 류실을 막고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논물을 깊이(6~7㎝) 대고 질소비료를 준 경우 논물을 얕게(2~3㎝) 대고 준데 비하여 비료손실량이 2배정도 많았다.

조절비료를 주는 시기에 여러가지 대용비료를 실정에 맞게 주어야 한다.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물이 부족하여 겉층이 마른 상태로 유지된 포전 또는 중간물말리기를 한 포전들에 물을 댈 때 담수식으로 계속 대지 말고 포화수식 및 간단물대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지를 많이 치는 포전이나 목표이삭수의 80%정도로 아지수가 확보된 포전, 뿌리썩는 현상이 나타나는 포전들에서 중간물말리기방법을 적용하여 유효아지비률과 뿌리기능을 높여주어야 한다. 물이 잘 새는 포전들에는 얕은 물대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품종적특성에 맞게 비료를 생육단계별로 과학적으로 주며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강냉이밭에서 이삭비료는 총질소비료량이 400㎏인 경우 250~300㎏, 500㎏인 경우 300~350㎏, 600~700㎏인 경우 350~400㎏ 주는것이 좋다. 품종적특성과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늦종인 경우 15~16잎시기에, 중간종인 경우 14~15잎시기에, 올종인 경우 12~13잎시기에 주어야 한다.

남새앞그루강냉이의 생육이 빨라진 조건에서 이삭비료주기를 빨리 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6월 19일은 세계사회주의운동발전에 있어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의 날이였다.

바로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확고한 담보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말살해보려던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이 물거품으로 되고 혁명적당들은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고 공동의 투쟁강령을 가지고 앞으로만 전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지금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불패의 령도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기고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밤을 꼬박 새우시고 다음날 새벽 당중앙위원회청사우에 휘날리는 당기발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울려온다.

—나는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떠메고나갈 굳은 결심을 다지였습니다.

시대와 력사앞에 엄숙히 선언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일찌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되게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되게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성과여부와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선행한 수령들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 당들에 내려먹여 로동계급의 당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시 련이어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은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 당들과 인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보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전략전술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불변의것이였다.

지난 세기 말엽 사회주의위업은 너무나도 큰 좌절과 시련을 겪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비렬한 기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위업에 흙탕칠을 하며 도전하여나섰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이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나라들과 인민들속에서 동요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주의제도를 잃고 한지에 나앉은 공산당, 로동당들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방황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결연히 나서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세계사회주의운동과 혁명적당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되자 진보적인류는 환희에 휩싸였다.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해 온갖 잡소리를 줴치던자들이 순간에 움츠러들었다.

로작은 그 심오성과 진리성, 과학성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급속히 파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에서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은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출로를 찾았다. 너도나도 평양으로 찾아왔다. 우리 나라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당대표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과 위력을 보았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만이 인류의 리상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조선에서 찌사회주의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게 되였다.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새로운 기초우에서 일떠세워야 한다. …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의 확고한 의지였으며 결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탐독하면서 당대표들은 그에 기초한 투쟁강령을 모색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지향과 심리를 헤아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과 회담을 진행하여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론의하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집대성한 평양선언이 마련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81(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70개 공산당, 로동당, 진보적정당 대표들이 서명한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되여 세상에 발표되였다.

평양선언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반사회주의광풍을 몰아오던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신심을 주었다. 사회주의운동은 혼란상태를 끝장내고 새로운 진군을 개시할수 있게 되였다. 평양선언에 서명하는 당들이 늘어났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희와 격정으로 끓고있는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이 평양선언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당들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새로운 방향에서 진행하자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섰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집권당들이 붕괴된 원인과 교훈을 심각히 분석하시고 우리 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혁명적당들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옳은 당건설지침을 가지지 못하여 좌왕우왕하던 진보적인 당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로작은 투쟁의 기치, 승리의 보검으로 되였다.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대로 당건설과 활동을 옳바로 하였다면 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교과서로 삼을것을 결의다지고 그것을 구현하여 당건설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사회주의운동발전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정치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고 세계 혁명적당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을 마련해주시여 사회주의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것은 사회주의운동사에 영원할 특출한 업적이다.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현도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자주정치의 거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총비서 바뜨리츠 미요비츠가 5월 2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기간 당을 령도하시면서 당건설과 당활동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의 당건설리론과 당령도업적은 모든 진보정당들이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다운 교과서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을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는데 바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였을 때에도 조선은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갔다.

조선은 미제의 압력과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가 1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올해 6월 19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 세계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근 반세기동안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당을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전위부대,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가장 큰 업적은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였을 때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여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심으로써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하기에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들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브라질, 방글라데슈, 인도네시아에서 좌담회, 업적토론회가 7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선군의 기치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브라질자유조국당, 브라질녀성련맹,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인도네시아 라비뜨라 바흐떼라 쁘라따마회사의 인사들과 군중들,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이 참가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이의 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당건설위업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하나는 당을 투철한 사상적전일체,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당으로 건설하신것이다.

김정일령도자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백승만을 떨칠수 있었다.

우리는 **김정은**각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인도네시아 라비뜨라 바흐떼라 쁘라따마회사 사장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시기 당사업과 군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전변을 안아오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수 있었다, **김정은**원수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몽골 다르한 올도 **김정일**유치원에서는 경축모임이, 태권도협회 터그쓰 에르조리그구락부에서는 영화감상회가, 국립교향악단극장에서는 경축공연이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경축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몽골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다르한 올도 **김정일**유치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누리에 존엄떨치며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해올수 있었다.

우리 유치원은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영예를 계속 떨쳐갈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대를 이어 전해가며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우겠다.

태권도협회 터그쓰 에르조리그구락부 책임자는 영화를 통하여 조선의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였다, 조선은 군사력이 위력하기에 그 어떤 강적과도 당당히 맞서고있는것이다고 말하였다.

경축공연에서 몽골예술인들은 《친근한 이름》,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한마음 따르렵니다》를 비롯한 우리 나라 노래들을 훌륭히 불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친 혼연일체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월 19일을 해마다 뜻깊은 날로 기념하고있다.

세계의 라지오, TV방송들이 이날이 오면 특별기념방송을 하고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은 특간호를 발행하는 등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대서특필하면서 높이 칭송하고있다.

얼마전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행사들에 참가한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은 세계적인 정치동란과 그를 기화로 벌리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단적인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보루로 우뚝 솟아오른 조선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도서, 사진 및 미술전시회가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 나이제리아에서는 사진전시회가, 중국과 메히꼬에서는 도서, 사진 및 미술전시회개막식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도서,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사진전시회에서 로씨야 블라고웨쉔스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웅적이고 근면한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면서 강성국가건설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허위선전과는 달리 조선은 평화애호적이고 자주성이 강하며 문명한 나라이다.》

나이제리아의 한 인사는 **김정일**령도자는 가장 독창적인 정치방식을 구현한분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만민의 심장을 그러잡았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수십성상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를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다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그이의 숭고한 사상과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라고 격찬하였다.

방글라데슈,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연설자들은 1964년 6월 19일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에서의 당건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는데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칭송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잡지들이 특집, 기념글을 게재하고 라지오, TV방송들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캄보쟈신문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제목으로, 라오스신문 《빠싸손》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정일**, 자주정치의 거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들을 편집하였다.

신문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로 만드신것은 그이의 특출한 업적중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총진군을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생하신다고 하였다.

캄보쟈의 국가라지오방송, 압싸라 TV 및 라지오방송, 에프엠 90.5방송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세계의 한결같은 칭송과 격찬은 뛰여난 정치실력으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인류자주위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장엄한 화폭이다.

날이 갈수록 위인칭송의 시대적흐름은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김철룡

싸이버공간을 둘러싼 중미사이의 마찰

얼마전 중국의 어느 한 연구기관이 미국의 싸이버공격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중국에 대규모적인 싸이버공격을 가하였으며 그 목표들속에는 국가지도자들도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중국이동통신집단공사와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도 감시 및 도청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올해에 들어와 중미사이의 대립은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지난 5월 미사법성은 이른바 인터네트를 통해 자국의 상업비밀을 절취하였다는 리유로 5명의 중국군관을 기소하였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오랜 기간 자국의 기본네트워크들에 대한 대규모적인 감시와 통제, 공격과 침입행위를 진행하여왔으며 오늘까지도 이러한 비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조금도 그만두려 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이 이번에 사실을 날조하여 자국의 군관 5명을 기소한 행위는 황당무계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인터네트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정탐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가안전보장국은 자국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경계하고 방어한다는 구실밑에 중국이나 로씨야 등 세계 각국의 근 10만대의 콤퓨터들에 저들과 정보를 주고받을수 있게 하는 쏘프트웨어를 몰래 삽입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통신기구기업인 화위기술유한공사 본사의 봉사기에 침입하여 최고경영책임자의 통신을 감시하였다. 이것은 2007년경부터 시작된 작전으로서 이 공사의 제품을 구입한 나라의 콤퓨터와 통신망에 침입하여 감시하는것이 목적이였으며 오바마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이러한 나라들에 싸이버공격을 가하는것도 가상하고있었다고 여론들은 전하였다.

최근에는 중국국가인터네트응급쎈터가 자국의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최신공격자료를 공개하였다. 올해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미국에 있는 2 077개의 네트워크통제봉사기가 중국국내의 약 118만대의 콤퓨터들에 대해 직접적인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1 754개의 웨브싸이트를 공격한 사건이 무려 5만 7 000차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자와 사실자료들은 콤퓨터를 통한 미국의 반중국정탐 및 공격행위가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지난해에 세계 각지에 전개되여있는 부대들을 《적》의 싸이버공격으로부터 막는다고 하면서 특별부대를 새로 창설하였다. 특별부대는 싸이버공간에서 중국에 직접 대응하는 부대로서 하와이의 미태평양사령부를 지키는것을 기본임무로 하고있다. 또한 《적》의 싸이버공격으로부터 중요한 통신기능을 방위하고 상대방의 암호를 해석하며 군대의 기밀정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하다면 이러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해킹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도 오히려 중국군관 5명에게 상업비밀절취죄라는 루명을 들씌워 법정에 기소한 미국의 속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국의 폭넓은 분야의 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싸이버공격으로 하여 피해를 입고있다는것을 어떻게 하나 세계에 인식시키고 저들의 싸이버공격을 《방어》적인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목표로 강행하는 싸이버전을 정당화해보려는데 있다.

중국이 결코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중국은 미국의 싸이버전에 대응한 강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죄행을 폭로하는 여론전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싸이버공간을 통하여 감행하는 미국의 주권유린행위에 경계심을 바싹 높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광범위한 싸이버전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싸이버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수진

원동지역개발에 힘을 넣고있는 로씨야

로씨야에서 원동지역개발에 큰 힘을 넣고있다.

원동에는 풍부한 원유가스매장지들이 있으며 농업, 석탄, 금속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올해에 들어와 로씨야정부는 원동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얼마전 울라지보스또크특별경제지대창설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생산분야를 중심으로 특별경제지대가 창설되여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울라지보스또크에 특별경제지대창설로 앞으로 예산안이 대폭 증가된다.

정부는 원동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주요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원동지역산업구조를 체계화하는 사업을 주요과제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원동지역에 우선개발권을 적용하여 법적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최근시기 로씨야에서 원동지역발전에 힘을 넣게 된것은 지금까지 서부지역개발에만 치중한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로부터 동쪽에서 경제발전잠재력을 강화하여 균형을 맞추려 하고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원동발전강령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원료가 풍부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채취공업에 고도기술생산이 따라서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해당한 하부구조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아시아나라들과의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고있다.

원동지역은 국내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지리적조건들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지역발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원동지역특별경제지대를 전문으로 맡아보는 원동발전성에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모든 권한이 넘겨졌다. 이에 따라 로씨야기업들이 본사를 원동지역으로 옮길것을 계획하고있으며 로씨야수상의 지시에 의하여 10개의 국영기업체가 움직이고있다. 이중에는 가즈쁘롬과 로스네프찌 등이 속해있다. 국영기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지역예산에 보충해줌으로써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고 한다.

로씨야정부는 기업체들이 원동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상대로 대규모투자계획도 실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원동지역개발에 힘을 넣고있는 로씨야정부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경제형편에 비관

일본의 기업체들에서 경제형편에 대해 비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1일 일본내각부와 재무성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2.4분기에 경제형편에 대한 대기업체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분기에 비해 27.3점 떨어졌다.

파업계속

프랑스의 전국각지에서 근로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있다.

13일까지 3일째 벌어진 파업에 수많은 철도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채무위기해소를 명목으로 부당한 개혁안을 도입하려는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고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파업으로 렬차운행이 중지되고 교통운수가 혼란상태에 빠졌다.

물가인상

도이췰란드에서 물가가 뛰여오르고있다. 13일 이 나라 련방통계국은 5월에 전국적으로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자살행위 만연

서방나라들에서 사회악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럽동맹성원국들과 미국, 카나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나라들에서 최근 3년동안에 자살건수가 해마다 6.5%씩 계속 늘어났으며 특히 미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다. 주요자살동기는 실업과 채무 등이라고 한다.

막대한 국가채무

에스빠냐에서 1.4분기에 국가채무가 9 899억 2 500만€에 이르러 국내총생산액의 96.8%를 차지하였다.

13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마약람용행위 성행

이딸리아의 청소년들속에서 마약람용행위가 우심해지고있다. 12일 이 나라 사회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60만명이상의 청소년들이 코카인과 카나비스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 비난

팔레스티나의 수감자문제성 부상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벌리는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에 대한 강제급식을 법화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살인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러한 법시행은 수많은 수감자들을 죽음에로 몰아갈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에서 반이스라엘시위

ㄱ-41094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